

이권 자료실		
등기	번호	일련
98	A82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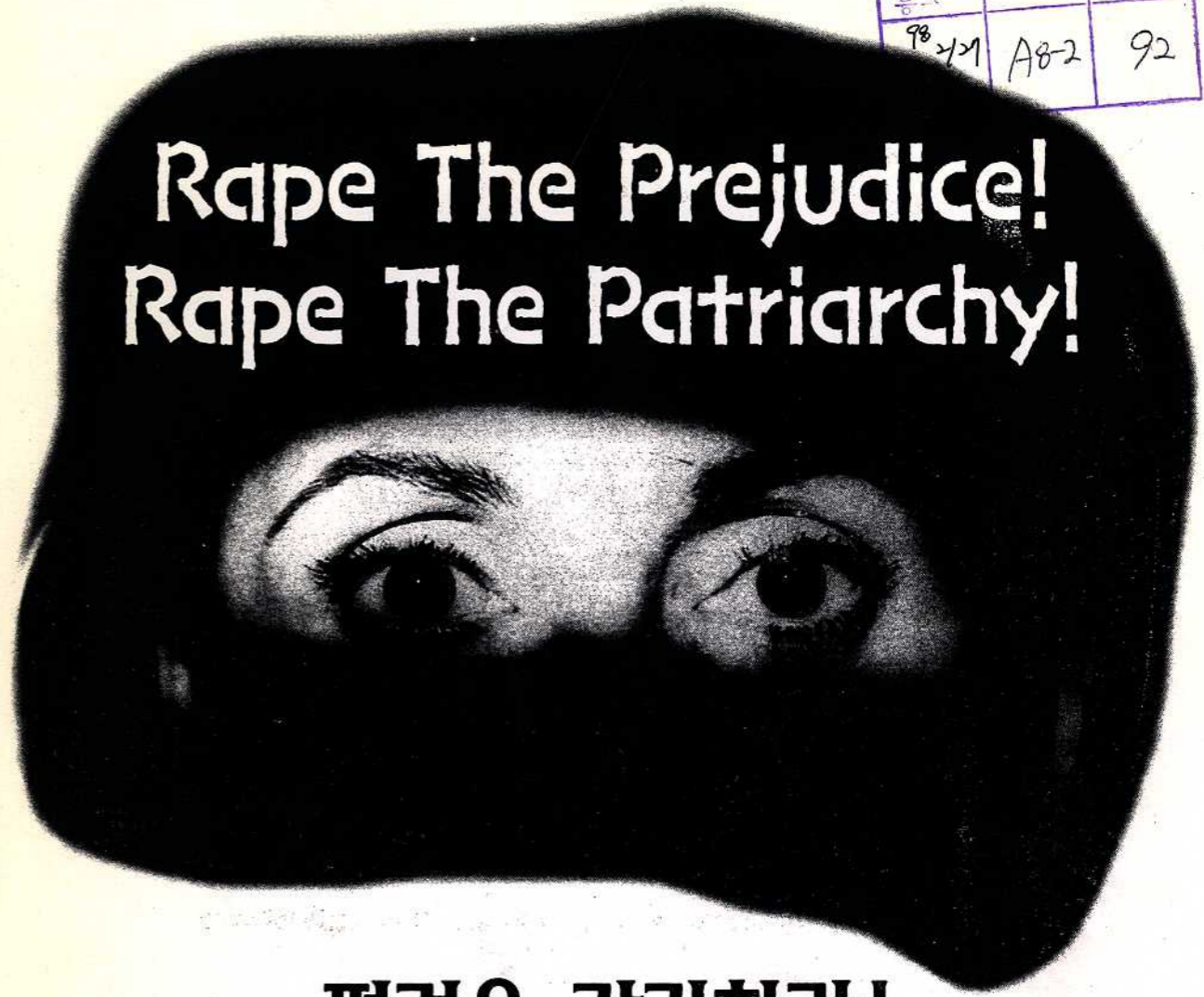


강간은 편견을 먹고 자란다.
 섹스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
 성욕은 동물적 욕구라고 말한다
 19세기 초
 그 근엄한 청교도들의 정신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강간은 그 속에서 알을 낳는다

여기
 강간을 지상에서 없앨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
 남자의 모든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어떤가?
 미국의 청교도 의회가 금주령을 내렸듯이
 우리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

매춘은 우리속에 있다
 그대가
 그토록 지키려고 안달하는 그대의 가정에
 매춘은 악마의 숨결로 그대를 지배한다

- 상징을 죽여라 - 중에서



Rape The Prejudice!
 Rape The Patriarchy!

편견을 강간하라!
 가부장제를 강간하라!

국민대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

.....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공대 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임업대 학생회, 문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자과대 학생회, 조형대 학생회 외 복악의 여러학우

교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명서

1. 들어가며

우리들은 그간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접해 왔다. 거기엔 마을 성인들에게 수년간 윤간을 당해오다 자살을 기도한 소녀가장이 있었는가 하면, 강간을 당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어쩔줄 몰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끔찍한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은 남의 일이었으며, 가해자는 그저 불량배거나, '철없는 남성', 아니면 정신병자라고만 알고 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곳,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사회'에서, 교수에 의해, 그것도 자신이 4년간 가르쳐왔던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교내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은 피해자 P씨의 직접적인 증언, 가해자인 송교수와의 직접 면담, 송교수와 피해자 가족 간에 있었던 대화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P씨의 병원진단서, 고소 이후 진행되어온 주변 정황 등 모든 사실을 토대로 이 문제의 진실에 접근하여 왔다. 이 사건은 가해자인 송교수가 학생에게 대한 선생의 권위와 스승에 대한 제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관에 끌어들인 후, 남성의 완력을 이용하여 백서를 유린한 강간사건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P씨의 고소 이후, 이전 송교수의 제자였던 이씨에 의해 진행된 P씨와 최씨(이씨의 남편)와의 간통죄 고소는 그간 사건의 본질을 크게 흐려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떠한 고소인 조사나,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취하되었고, 간통죄 고소 이전에 송교수에 의해 간통고소가 발설된 점, 학교측이 먼저 이를 학생회에 고지한 사실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 유포된 거짓 조작극이라는 의심심을 우린 가질 수밖에 없다.

3. 대학당국에 대하여

우리들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학교측의 제 행위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끼며, 대학 당국의 오도된 사태인식과 마비된 양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총장은 이 사태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이미 피해자 P씨의 부모를 두 번 만나 사태의 전말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장이 두 번째 피해자의 부모를 만났을 때 입에서 나온 말은 '합의나 고소냐'는 것이었고 '고소를 했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후 학교측은 간통고소건을 먼저 유포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입을 막고, 사건을 보도한 대학원신문을 회수 폐기하고, 각 단위의 학생들이 붙이는 대자보를 훼손하여 언론 행성을 막는 등 반지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면서 학교측은 참으로 얼굴 뜨겁게도 '대학의 명예'를 운운했고, 졸업생들에게 입혀질 취입에 있어서의 '피해' 등을 은근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진실에 순종하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대학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고 우리들은 판단한다. 대학의 진정한 명예와 가치는 지성과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정의를 실천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측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반교육적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범법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및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지켜내지 못한 학교당국의

책임은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4. 나오며 - 대책위의 입장

우리들은 피해자 P씨의 용기있는 증언과 고소를 경의롭게 바라본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P씨는 '국민대 성폭행사건 대책위'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P씨의 말을 진실로 믿는 이유이고, 우리가 P씨의 요구에 화답하는 연유다. P씨의 이 한마디는 우리 사회를 황황하는 끔찍한 약육강식 논리에 대한 저항이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의 비명과 함께하는 인간의 육성임을 우리들은 믿는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양심,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어야 한다! 우리들은 진실과 인권을 위하여 논의하고 실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학교당국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성폭행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규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한 범집행이 있어야 한다. 학내에선 학교당국의 정계에 의한 송교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학내 성폭행사건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지, 사건을 감추려 한다고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에 학교측이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많은 일들은 반민주적, 반지성적 폭거였다. 이런 행위들을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의 보직 사퇴를 요구한다.

1. 학교측과 사회는 '성폭력에 관한 학내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전 사회적인 성폭력 추방과 해결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대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

-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 동아리연합회, 공대학생회, 법대학생회, 문대학생회, 경상대학생회,
- 삼과대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자과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 조형대학생회 외 여러 복약인들

■ 사건 경과

■ 96년 12월 11일

피해자는 이날 송교수가 시킨 논문 정리를 하고 있었다. 송교수가 피해자에게 대학원도 합격했고 수고가 많으며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를 한 뒤 집에 내려다 준다고 했다. 의정부를 지나 왕십리로 가는 길이었으나 파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어느 여관 앞에서 차를 세웠다. 교수는 단둘이 할 이야기도 있고, 대학원 방에 복잡한 문제도 있으니 밤새 얘기하자며 같이 들어가기로 요구했다. 피해자는 다음에 안되겠냐고 했지만 송교수는 자신을 존경하면 같이 가자, 같이 가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묵시적인 승낙을 했고 반신반의했지만 따라 들어갔다. 한참을 과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송교수는 애인이 있다, 4학년씩이나 됐으니 경험은 있겠지?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송교수 : 이날 송교수는 피해자를 여자가 아닌 학생으로 생각을 했고, 평소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관에 갔다. 그리고 남학생이라도 마찬가지로의 행동을 했을 것이며 결백하다고 말했다.

■ 12월 12일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서 11일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으며 친구인 안학우는 고소하라고 했지만 대학원에 입학한 상태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 사건 3-4일후

피해자는 같은 과 교직원인 이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 했으며 이씨는 '별로 좋을 것 없으니 숨기고 있어라, 나는 듣지 못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2월 17일

피해자의 부모는 총장을 만났다. 총장은 이들의 여유를 달라고 했으며 송교수를 불러 달라는 부모의 제의는 거절했다. 부모가 스스로 공대 감의실로 가서 송교수를 만났다. 교수는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했다. 교수는 용서를 빌며 자신의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이 곳에서 피해자와 송교수가 대면을 했다.

■ 2월 18일

송교수방에 있는 조교 최씨와 피해자의 부모가 만났다. 최씨는 유학을 가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와 만약 유학을 간다면 송교수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그런 식의 도피 유학은 보내고 싶지 않다, 교수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 2월 19일

▷ 총장면담: 이날 피해자의 부모는 두 번째로 총장을 만났다. 정식적인 코스로 유학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저 달라고 말했다. 총장은 그럴 수 없다며 '합의냐, 고소냐'라는 식의 말을 했고 부모님은 합의를 하면 내달 돈 받고 몸판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이미 고소를 했다, 고하자 총장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가라고 했다. 신입생 수련회 장소인 청평에 있던 송교수는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밤11시경 그쪽에 도착한 부친과 삼촌이 교수 방으로 가기 전에 학생들과 약간의 밀고 당기는 일이 있다가 부친과 송교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 그 전에 송교수는 녹음기가 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 부친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겼다. 이미 고소 사실을 안 송교수는 전면 부인을 했다. 그리고 송교수는 "학교에서 나를 밀어주고, 백도 있고, 돈도 있다. 당신 말

성폭행사건 개요

내일 모레면 간통죄로 감방간다.' 는 말을 했다.

■ 2월 20일

▷ 이씨 : 피해자와 남편인 최초교를 간통죄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 피해자 : 최초교는 같은 대학원 방에 있는 선배로써 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고 간통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으며, 부인인 이씨와도 평소에 친하게 가족처럼 지냈다.

■ 2월 26일

송교수와 이씨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총여, 대학원총학, 총학, 공대, 전자과, 학보사, 학생과에서 대표들이 모였으며 교수는 결백하다, 그리고 몇몇하게 말 할수 있다고 했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에서 진행 중이고 교수로써 어떤 말도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조기에 끝나는 길어지든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주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했으며 그 이후에 돌팔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맞을 것이고 무혐의로 되면 학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는 수업을 못할 것 같으나 매일 학교를 나오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 2월 27일

송교수와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했으며 송교수는 강간을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냥 잤다고 진술했다.

■ 3월 11일

학생처장이 준비한 '성폭행 대자보 관련 당사자 모임'이 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 장소에는 대자보를 부착한 단위의 학생 대표와 학생과 직원,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모였으며 당사자들은 송교수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남편인 최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이씨가 참석했다. 먼저 피해자가 진술을 했다. 그 다음 이씨의 진술과 이씨가 가져온 남편인 최씨의 진술서를 읽는 순서가 있었다. 이씨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으며 가정적인 문제로 남편을 고소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송교수에게 2월 19일 청평에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간통부분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런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학생처장은 법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학교의 명예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에게 기다려 주기를 당부했다.

■ 3월 26일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이 고소인이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한달이 넘게 보류중인 상태에서 이날 취소가 되어 양천경찰서로 넘어갔다.

■ 4월 1일

이씨는 간통고소를 정식 취하하였다.

■ 4월 22일

피해자는 이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현재 강간 고소건은 검찰조사중이다.

■ 알아야 할 것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이번 학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송교수를 고소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확실하게 '강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강간'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다. 가해자가 교수인 만큼 불필요한 신중을 기할 수도 있다. 교수가 이런 사건의 가해자가 될 경우 국민대가 받아야 하는 불명예는 아주 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도가 높은 사람이 학생에게 추악한 범죄에 속하는 강간을 했다는 것은 믿기가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97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성폭행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교수이거나 강사다.) 더구나 피해자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수의 행위는 명백하다. 왜 강간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판단을 하고 강간 사건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며 그 근거를 알아보려고 한다.

〈사건내용 분석근거〉

1. 사건당일 송교수는 저녁을 먹은 후 드라이브를 잠깐하고 P학우를 의정부와 상계동길을 통해서 왕십리에 있는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다. 그리고는 길을 잘못 들어 파주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 있는 한 여관으로 들어갔다. 교수는 P학우를 여자가 아닌 학생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여관에 갔다고 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강간 사건 대부분이 도발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인 것이 많다. 물론 계획적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치밀성을 가지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계획하는 기간이 길었던 짧은 의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성균관대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난 강간미수사건은 그 가해자가 모범생이기도 하고 자신의 강간미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칼과 청테이프를 지니고 화장실로 들어간 점으로 보아 치밀하지는 않지만 일정정도 계획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교수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치밀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이라는 것은 드라이브를 함으로써 밤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만든것이다. 공간적이라는 것은 의정부길을 이용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평창동에서 의정부길을 이용한다는 구실이 있으므로 서울근교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가운전자가 의정부길과 파주길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선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송교수의 진술중 'P학우를 여자가 아닌 학생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여관에 갔다'는 부분은 그 이전에 여관에 갈 것을 미리 설정해놓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2. P학우는 사건 바로 뒷날 친구인 기계과 93학번 안학우에게 이번 일을 말한바 있다. P학우는 사건 3-4일후 교직원 이씨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며 안학우와 이씨 모두 P학우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며 안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다. 교직원 이씨(간통 고소인)는 들은적은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점을 가져 본다면 이씨가 왜 기억을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P학우의 이야기가 두달만에 잊혀질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3. P학우는 같은 과 조교인 최씨와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취소된 상태이다. (고소인인 이씨는 2월 20일 고소를 했다고 했지만 고소인 진술이 없으며 고소가 아닌 보류 상태였다가 소문만 만들어놓은채 취소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혼 상태여야 하지만 이씨와 최씨는 이혼 상태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 간통 사건에는 송교수가 깊은 관련이 있다. 고소하기 전인 2월 19일날 송교수가 P학우의 부친에게 간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교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며 단지 '당신 딸도 깨끗하지 않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기서도 '당신 딸도'라는 말은 자신도 깨끗하지 않지만 P학우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송교수와 부친과의 이날 대화는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

4. 2월 26일 송교수와 학생 대표간의 면담 자리에서 송교수는 법정에서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기다려주기를 당부했으며 만약 법정에서 해결된 후 돌팔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맞을 것이고 무혐의처리가 되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교수가 진실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송교수가 결백하다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혐의가 풀려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반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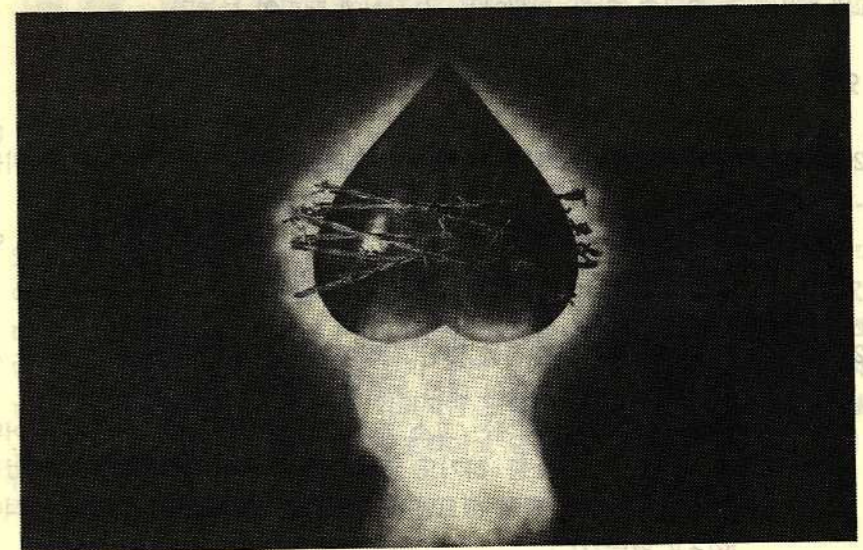
1. 강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이런 사건이 불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역시도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취급되며 여러 억압과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폭력을 당해서 고소를 할 경우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성폭력을 당해서 고소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억울함을 당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강간을 당해서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가 받아야하는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양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왔다.

2.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소위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몰아가면 피해자에 대한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재판에서도 승소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에 많은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범죄의 경우는 이것밖에 없다. 지금도 역시 피해자에 관한 나쁜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 면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소문이 결정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강간이라는 사건의 핵심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몫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다. 강간은 정조관련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사람이 강간을 당한 것과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간을 당한 것은 법

■ 알아야 할 것들

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법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성경험이 있는 여자는 강간해도 된다'는 생각을 낳기가 쉽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이 고소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송교수가 관련이 있는 것, 보류상태로 한달남짓 남아 있다가 취소한 것으로 보아 많은 의문이 생기지만 피해자의 말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 간통사건 때문에 강간사건의 진행이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 이번 학내 성폭행 사건을 대하면서 모두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버려야 할 생각과 가져야 할 생각들이 있다. 먼저 이번 사건에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있으며 그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간 사건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 주변의 소문에 솔깃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혹시 문란한 여성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성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소위 여성은 어려서부터 정숙하며 순종적이어야한다. 하지만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을 당했을 경우 왜 방어하지 못했느냐라는 비난을 하기 쉽다. 이때는 이미 왜곡된 여성성에 길들여져 방어능력이 떨어져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다. 가장 쉬운 예가 그것이다. 대학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의례히 여성은 음담패설에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여성이 그러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에서 들리는 소리-왜 술을 마셨느냐? 너가 술만 안마셨어도 그런일은 없었을텐데...-가 여성에게 더한 피해를 주었으면 주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술을 마신 여성에게 성추행을 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화살을 돌린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의 소문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중의 하나다. 물론 소문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지만 소문이 강간이라는 사건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한다.



- 원동업 (대학원 총학생회장) -

씨가 '강간'사건으로 피해자인 송교수를 고소한 날은 2월 17일. 이를 접수한 총여학생회가 이 사건으로 대자보 작업을 한 것은 2월 21일. 그날 여학생회측은 학생과로부터 전화한 통을 받게 된다. 피해자인 P씨가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은 P씨와 P씨의 같은방 대학원생이었던 최아무개(남)씨였고, 고소인은 최아무개씨의 부인이 이아무개씨(여)라는 내용이였다. 4월 14일 현재는 취하가 되어버린 이 간통죄 고소는 그간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크게 흐려놓으면서, 강간 피해 당사자였던 P씨에게 삼중사중의 고통을 안겨 주었다.(4월 22일 피해자는 간통죄와 관련하여 이씨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에 들어갔다.)

☞ 간통죄에 대하여

강간죄와 간통죄는 엄연하고 명백하게 다른 죄이다. 강간죄는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전쟁터에서는 전범과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요구가 드세게 일고 있는 '폭력적 범죄'이며, 간통죄는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를 미루어서도 폐지론이 우세한 '개인적 영역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강간을 한 남성보다는 간통을 한 여성에 대하여 더 많은 비난을 가하는 '구습'에 젖어 있으며, 이런 모습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논의되자 많은 사람들은 의혹의 눈으로 피해자인 P씨를 쳐다보았고,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은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또 피해자인 P씨는 "간통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간통사건도 취하된 상태이다. 이렇듯 그 실체가 없는 간통 사건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힘으로 이 사건을 덮고,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데 작용했다. 지난 기간 우리들을 혼돈과 불신 속에 빠뜨렸던 이른바 'P씨의 간통 사건'은 도처에 술한 모순점과 의혹을 안고 있다. 우리들은 그 의혹에 대하여 학교와 당사자인 송교수, 이씨, 최씨에게 그 진실에 대하여 묻는다.

◎ 간통은 있었는가?

2월 18일 : 총장은 P씨와 스캔들이 있다고 송교수가 말한 최씨의 부인 이씨를 불렀다.

- 의혹 : 총장은 왜 강간사건과는 관련도 없는 사람을 불렀으며 그 이후 이씨가 간통으로 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2월 19일 : 송교수는 P씨의 부친을 만난 자리에서 P씨가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말함. (송교수와 대화 녹취록이 있음)

- 의혹 : 간통은 배우자 이외에는 고소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송교수는 어떻게 간통으로 고소를 하기도 전에 고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했으면서 3월 11일 간담회에서는 왜 그런적이 없다고 했는가?

모
순
·
의
혹
투
성
이
의
간
통
사
건
에
대
하
여

■ 알아야 할 것들

2월 20일 : 이씨는 P씨와 자신의 남편인 최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 의혹 : 간통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왜 이씨는 이혼 소송은 내지 않고 고소만을 했는가?

2월 21일 : 총여학생회는 강간 사건을 알게 되고 대자보 작업에 들어감. 학생과에서 P씨가 간통사건으로 고소되었음을 총여에 알려음.

- 의혹 : 어떻게 학생과는 P씨의 간통사건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가? 고소인 이씨가 간통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다면 왜 알리게 되었는가? 2월 18일 총장면담과는 무관한 것인가?

3월 11일 : 이씨는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적인 일로 남편을 고소하였으며,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애매한 말로써 고소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의혹 : 왜 이씨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서도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가? (고소인 조사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아 고소장은 애초 성동경찰서에서 양천 경찰서로 넘어갔으며, 이때까지도 끊임없이 간통죄 고소 사실을 확인하려는 P씨에게는 아무런 확인이 될 수 없었다.)

4월 1일: 간통고소 취하

4월 9일: 간통고소 취하 서류를 P씨가 경찰서에서 확인.

(4월 22일 : P씨는 간통사건과 관련하여 이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함.)

◎ 간통 고소의 진실

P씨 어머니는 대책위와의 대화를 통하여 "나는 그 최씨부부가 더 밍다."고 말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딸을 괴롭힌 다음 그들은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교수나 학생들의 의혹에 찬 눈초리이며 형클어지고 왜곡된 강간 사건만이다.혹 이번 간통고소 사건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모종의 조작이 가해진 것이라면 이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스스로가 주는 도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이 지극히 '악의적인 모략'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쩌면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악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반상담부장) -

■ 성폭력의 개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또는 거부할 수 없도록 위계나 권력이나 완력 등을 사용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폭력이라 한다.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해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남성피해자는 대부분 취약한 위치에 있는 남성, 또는 남자어린이로서 이는 성충동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 성폭력의 실태

공식통계를 보면 1988년 1년동안 신고된 강간이 5천건이 훨씬 넘는데 그 증가율 또한 모든 강력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산하면 1년에 25만 건이나 된다. 성추행이나 성적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여성들의 76.4%가 가벼운 추행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다. 92년도 국제형 사기구에 의하면 한국은 성폭력 발생율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여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머니가 되어서도 성폭력의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폭력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피해여성들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순결상실감, 무력감, 두려움, 우울, 분노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이나 자살기도에 이르기까지 한다. 또 강간으로 임신, 성병, 낙태 등의 신체적 피해를 겪기도 한다.

■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요인

■ 재로 우리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남성위주의 잘못된 통념, 이중적 성규범과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 권력관계에 있다.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는 여성이나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로 보고 이에 대한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가정 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상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 기고의 글 1

위계 관계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남성이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 남성이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기고 한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

■ 재로 성폭력을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범죄가 아니라 남성의 성충동에 의한 성행위로 보고, 여성의 부주의나 유발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강간당한 여성들을 순결을 잃었다고 본다. 또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대부분의 강간이 합의된 성교이지 진짜 강간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정조보호차원에서 인식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은폐되고 재발하게 하고 있다.

■ 재로 강간의 법적정의가 '여성의 동의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하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용한 폭력과 자신의 저항여부를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여성의 동의유무, 성기 삽입유무의 양분법적인 법적 정의 및 법적인 고소기간이 사건 후 1년 이내라든가, 친고죄 규정 등은 실제 피해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경찰, 검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여성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적인 경험을 하는 피해자가 허다하다.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형사나 검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또 강간당하는 듯한 곤혹스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치감과 불쾌감으로 당시 입었던 옷을 빨다거나 목욕을 함으로써 물적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강력범죄의 기소율이 70~80%인 반면 강간의 경우 기소율이 30~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하기를 꺼리게 되고 고소절차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각종 장애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재발을 만들어내 성폭력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 재로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에 바탕한 성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퇴폐적인 성을 보여주고 있다. 음란물의 범람, 여성의 가치를 오로지 성으로 다루는 광고, 영화 여기에 맞춰 자

신의 가치를 낱싹이나 미모 등 성적매력에두는 일부 여성들의 인식 등도 반인륜적인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성교육의 부재와 의사소통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여성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요구나 느낌, 특히 성에 관련된 것을 표현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절제받으며 성장한다. 또한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안된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도 남성은 이를 완곡한 내숭 정도로 받아들이고 강행한다.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에 체계적인 성교육은 반영되지 않고 신체구조와 생리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지식전달 차원에 머물러 있어 인간적인 성, 함께 누리는 성, 책임지는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한다. 게다가 가학적인 성과 또래집단에 의해 주입된 성지식은 여과되지 않고 받아들여져 정상인조차 느끼지 않고 성폭력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폭력을 글 절하기 위한 대책

개인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순결관을 남녀 모두 극복해야 된다. 둘째, 성폭력 피해여성이 그들의 피해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여자들이 자기의 느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넷째,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회제도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피해여성들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여성을 위한 치료센터나 피난처 등의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성폭력 예방과 사후대책이 보장된 성폭력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신고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성폭력범죄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하며 법집행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고 성폭력피해가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으로 바꾸기 위하여는 친고죄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기고의 글 1

고 내 성 폭 행 사 건 을 보 면 서

- 권혁상 (법대 학생회장) -

사제지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그 사건은 강간사건. 현재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로 조사중이다. 그 강간사건의 피해자는 우리 학교 공대의 여학생으로서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이며 가해자는 그 여학생의 지도 교수라 한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기 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은폐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 자치활동기구들은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리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현재 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한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반 학우들이 무관심과 단순히 재미있는 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학우들의 태도는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보려는 모습보다 본질을 간과한 채 가벼운 생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나의 일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우리 일로 보지 않는다. 단지 운 나쁜 피해자의 일로 여기거나 혹은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아 추잡한 소문에 일조하고 있다. 지금 교내에는 온갖 소문과 추측만 떠돈다. 사건의 진행이나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 문제의 본질은 "강간"이다. "강간"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함으로 인해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세 단어는 모두 다른 의미이다. 이 사건은 성희롱, 성추행이 아닌 "강간"이다. "강간"은 폭행이나 강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은 남성기가 여성기로 삽입되는 것이다.

"강간"은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다른 누구 것도 아니고, 다른이의 의사에 의해 다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고 또한 독립적인 존재이기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자기에게 할 수 없다. '성적 자기 결정' 역시 생명이나 자유 평등과 같이 존중받고 보호되는 다른 가치들과 같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호대상은 여성으로서 그 여성이 기혼이든 미혼이든 혹은 행위자와 그 전부터 성관계가 있었거나 매춘부이건 불문한다. 결국, 여성의 의사와 반대되는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강간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끔찍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성적으로 유린당한 여성을 보호하고 치유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강간"의 발단을 여성에게 돌린다. 심지어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시각과 따뜻한 감성을 가져야 할 학생들조차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여자가 오죽 해퍼보였으면 그랬겠냐. 전에도 성경험이 있었으니 괜찮다. 먼저 유혹을 했다.' 등등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다. 이런 말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명예.

- 기계설계 93 안모氏 -

친구의 옆에서

P는 고소하기 전에 두 달간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 새벽에 수영을 하고, 그 싫어하는 영어공부도 학원다니며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누가보면 삶을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한시도 쉴 틈없이 그렇게 지내려고 했다. 한 달 정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려 했고, 비교적 잘 견뎌내는 듯 했다. 물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자신의 모습에 무신경해지고, 어느날은 이게 누군가싶게 질게 화장을 하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말 잘 견뎌냈다. 아니 잘 견뎌 내는 듯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난 결혼 안할거야', '어떻게 해야 복수를 할 수 있지?',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이런 말들을 뜬금없이 하기 시작했다. 잊혀지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말들을 하는 빈도가 늘었고, 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다고 했다. 내게도 울면서 말하기 어려워 했고, 말한 후에도 밖으로 알려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던 P가 낯선 남자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끔찍한 일들을 말하면서 아주 괴로워 했던 것 같다. 다시 당하는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참 힘들어 하기도 하면서, 싫고 힘든 내색도 없이 잘 해냈다.

나는 공대 여학생들 한 두명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P는 총여학생회에게 사실을 알렸다. P가 학교에 알리기를 원했을 때, 공대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대자보를 썼다.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P의 대학원방에 알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전자과 여학우가 대학원방에 다녀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언니, 벌써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 사실은 나와 교직원 이씨만이 알고있는 줄 알았었다. P는 내게 강간 사실을 말하고 많이 불안해 했다고 한다. 알고 있는 P에게 '고소를 해야한다', '떨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내가 누구에게 말해 버릴까봐 걱정하고, 후회했다고 사과를 한적이 있었다. 그렇게 불안해하던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주던 사람이 이씨였다. 이씨가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P는 그간의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때는 P도 나도 이씨를 고맙게 생각했었다.

총여학생회와 공대여학생회 명의로 대자보를 써서 붙였고, 그 날 오후에 그 대자보는 다시 뜯어졌다. 간통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간통사건이 강

를 고려하지 않기에 쉽사리 나온다. 나만큼 남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강간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 이것도 피해당한 여성에게 수치심과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여러 가지 고통이 피해자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강간당한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인신공격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했다고 몰고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정식 재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교수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교수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 해명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주지 않아 그에게 적절한 절차를 밟아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즉, 유죄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궁지로 몰아 마녀재판처럼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이 교수에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교수이기에 학생들로부터 무조건 불신당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담당학생을 강간한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평성이 없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의견의 내용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파멸도 맘에 안드는 교수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적절한 절차를 통한 재판의 판결을 원하는 것이다. 판결이 유죄라면 그에 따르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무죄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가해자인 교수도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고 해명을 할 수 있다. 성폭력 전담 게시판은 피해자의 것만은 아니다. 학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 오히려 피해 학생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본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형평성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다를 때 대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정의, 선, 인간애 등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진실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어떤 관계보다 바르고 진실해야 할 사제지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슬픈 것은 사실이다. 사제 관계에서 신뢰감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겠는가.

지금 우리 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투명한 관심과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세를 가져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측에도 바란다. 진정한 명예란 사건을 축소시키고 왜곡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와 그 결과를 정당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대학사회 안에서 만이라도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바라며 글을 맺는다.

사람답게 살기 십다운 사회에서

P학우의 글

작년에 난 인격을 짓밟히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부당함을 덮어 두는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해오는 교수의 헐박을 참을 수가 없었기에 난 싸우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절망과 아픔 그리고 좌절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사회는 말할 것이다. 왜냐면 난 힘없는 학생일 뿐이고 어쩌면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인간은 내가 아닌 송교수일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고 어두운 면을 뿌리 뽑기보단 은폐하고 감추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혹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우린 그렇게 해왔으니까 말이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일테니 말이다.

내가 학교에 와서 대책위라는 이름하에 붙여진 대자보를 보았고 아울러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획획 지나쳐버리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느낌은 그러한 것이었다. 왜곡된 소문들만을 더 믿고 싶어하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내가 당했던 사건은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거나 혹은 술자리에서 들먹이는 음담패설과 가십거리 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 마음줄이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만 느껴진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적어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영화나 TV속이나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부도덕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대다수가 숨겨지는 것일거다. 왜냐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무모하거나 만용의 행동으로 보일테니...

넉달이란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정말로 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문득문득 후회스럽기까지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도울려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쩔더라도 난 포기할 수 없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에 맞은 매가 얼마나 아플까? 난 몸에 맞은 상처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에 겨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신적인 폭력은 정말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아프기 그지 없다. 너무나 아파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응당 피해자는 이렇거라고, 마치 셀로판지를 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만의 색깔로 바라 보고는 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거나 연기일 거라고. 반대로 죄인처럼 움추려들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했으니까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댓가를 치루기를 바란다. 내가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인간다운 권리를 찾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다른 방향에서 불필요한 억압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공론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랬고 학우들의 순수한 열정을 믿었다. 지금은 과연 명분이 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해명해야할 일이 있다. 변명같아서 조용히 있었지만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몸담으려고 했던 연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권력.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강한 고리로 연결된 관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송교수 휘하에 있으면서 보아왔던 대학원생들의 권력다툼, 거기서 갈려진 패싸움. 순수한 연구보다는 상대방의 헐뜯기와 닮은 비방들...거기에서 우왕좌왕했던 나. 우습지만 그때는 그것이 옹졸하거나 치사한 행동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그랬다. 난 성공과 명예라는 굴

간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간통사건은 강간사건의 초점을 흐려 버리기에는 충분했다.이후로는 수도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내가 알고있던 사실도 다른 일들로 탈바꿈되어 엉뚱한 소문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공대여학생회 대표로 나섰던 여학생은 여기저기 불러 다니며 시달렸고, 함께 대자보를 썼던 공대 여학우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피해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일을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번은 총학생회장이 P에게 간통사실을 확인했다는 소문이 난 적이 있었다. 총여는 진위를 밝히기 위해 P에게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초췌한 모습으로 학원에 나왔다. 난 단순히 소문때문에 밥을 못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은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상처들이 빨갱게 부어올라 있었다. 어제 저녁에 못견디게 괴로워서 자해를 했다고 했다. 나는 자해를 한 사람을 처음 봤고, 4년이나 함께 지낸 친구가 자해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벌이는 것은 사회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교수의 퇴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보통사람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일이 더 진행된다면, P는 더 모진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런 일들을 P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이고, 또다시 자해를 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알려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 외의 다른 여학생들도 시달리고 지쳐서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대로 묻히는 줄만 알았던 일이 다시 재기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기쁘다. 재판에 이기든 지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레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보이는 암투도 보지 못했고 심상치 않은 연구실 분위기도 감조차 잡지 못했다. 길들여진다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일 것이다. 왕모씨는 친구조차 맘대로 사귀지도 어울리지도 말아야한다고 했었고 연구실일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했었다. 아르바이트, 영어공부도 남몰래해야 했고 그것을 들켰을 때엔 대등하게 연구를 하지 않는 다하여 교수와 동료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했었다. 난 외톨이였고 늘 혼자였다. 최모씨도 그것을 알고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 했었다. 그렇지만 권력다툼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쫓겨가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최씨는 “백모는 왕모의 첩자고 자기를 몰아냈다”고 교수에게 말했고 왕씨는 “백모는 최모의 애인이다”라고 교수에게 말했었다. 그러했던 연구실 분위기는 교수에게 엄청난 일을 벌이도록 하는데 어떠한 힘을 부여했고 급기야는 자신이 가진 파워를 시험해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송교수는 권력이라는 것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으로 ‘나’라는 인간을 바라 보았고 그래서 나를 폭행했으며 자신의 권력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감싸려고 했었다.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어깨를 쓰다듬었고 비밀스런 애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실 학생들이 송교수를 비호하는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왕씨를 비롯한 연구실 사람들은 송교수가 나에게 짝퍽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조용히 학교를 그만 두라고 권했었다. 그렇지만 난 정면으로 송교수와 싸움을 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왕씨는 “백모로 인해 인생이 끝났다. 이제는 막노동판에 갈 판이다.”라고 말하고 최씨는 “백모 때문에 개차반되었다”라고 말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울대 우조교가 고소를 했을 때 그 교수휘하의 학생들은 위증을 했다.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기심때문이었을까?

강간으로 고소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정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법은 유교적인 보수사상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간사건은 간통문제가 늘 따르고 있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송교수와 그 방 대학원생, 그리고 송교수 가족이 서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떠든다는 것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과장되게 부풀리고 불리한 일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위선자들. 그리고 아직은 검사 수사중이고 변수도 많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송교수와 대질 신문을 받았을 때 송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에 따를 뿐입니다”로 일관했었다. 분명 많이 들어본 대사들 일 것이다. 나는 한보청문회를 통해서 송교수같은 부류의 특성을 알았었고 그러한 모습에서 권력의 속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법조차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는 너무나도 싫어진다.

송교수에게 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살고 싶지 않았다. 수치스럽고 저항할 수 없었던 약한 내 모습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다 날 위해 물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더욱 열심히, 때로는 과장되게 악착같이 살려고도 했었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하여 우울했었고 더러운 세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도망치려고도 했었다. 더더욱 시간이 지나서는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에 분노하고 복수를 결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나’를 찾는 것이었다. 굴레 속에 갇혀 허둥대거나 빈껍데기처럼 허무에 휩싸인 내가 아닌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하며 타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을 찾고 싶다. 그리고 희망을 안고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싶다.

오늘 97년 3월 29일 토요일 P씨를 만났다. 그녀는 차분하고 총명하고 착해 보였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녀가 오늘 본 사람들은 [성폭력 상담소]의 조중신 상담 1부 실장과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줄 변호사 한 분이였다. 성폭력 상담소에선 총여학생회 남전리씨, P씨, 조중신씨와, 그리고 말없이 그 상황을 지키며 듣고 있는 조사원 이렇게 넷이 앉아 있었다.

P : 검사가 성희롱은 분명하니까,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승률이 있습니다.하고 말하던데요.
 조 : 성희롱의 범위는 그야말로 집적거림, 불쾌한 언어 같이 이미 우리 일상에 퍼져 있는 많은 사소한 것들을 지칭합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때 처음 개념이 컸을 정도입니다. 아직 그 사례로 처벌받은 예가 없으며, 우조교 사건도 아직 3차 공판이 남았잖아요.

P : 그건 성희롱이 아니었어요.
 조 : 알아요. 지금 검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삽입시도에 의한 상처였다는 진단서가 첨부된 상태고, 사건 정황이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검사도 함부로 불기소처분 같은 것은 내리지 못할 거예요. 저희들 성폭력 상담소와 관계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안을 함부로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주변에서 얘기하세요.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수록 일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해요.

P : L씨가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사건이 있으니 조사받으러 오란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아버님이 성동경찰서에 확인을 했을 때에도 없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양천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조 : 간통사건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 누구였죠.
 남 : 저희들은 학생과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그 동아일보 기사를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거든요. 자신은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P : 왜 L씨와 C씨가 그렇게(위 확인되지 않은 간통죄 고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P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만약 C씨가 나와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부재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C씨는 그런 일-C씨와의 성관계 등-은 없었어요.하고 말했다.)

조 : 지금 저쪽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P씨를 문란한 여자로 만들어서 사건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P씨를 지치게 하고, 화간으로 몰려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P씨를 도와줄 분이 계신가요?

P :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지는 몰랐어요. 저는 연구소 생활을 했고, 많은 시간을 방 사람들하고 지냈어요.

남 : 그런데 방 사람들하고도 갈라져 있었대요. (함께 같은 방에 있던 왕씨나 임씨 등은 ‘P씨와 C씨가 친했고, 그래서 아마 깊은 관계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제출한 바 있다.)

조 : 현재 강간사건과 간통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검사에게 탄원서 형태로 들어가는 문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P씨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죠. P씨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P씨가 결백하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 중략. P씨가 진술서를 보충하러 워드작업을 간 사이)

P
씨
와
의
성
폭
행
동
행
기

조 : 이런 사건은 좋은 검사, 좋은 판사를 만나야 하지요.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전인가 초등학교 6학년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60대 담임선생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선생님과 닮은 아버지의 얼굴을 자꾸 피하질 않나, 자신의 잘한 일을 칭찬해 주려고 자길 쓰다듬어 주는 다른 선생님의 뺨을 때린 일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게 되서는 상담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선생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손목과 손목을 교차해 수갑찬 모습을 만들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건을 맡은 판사가 젊었어요. 뒤로 한 6개월쯤 지났나요? 판결 1주일 전쯤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판사가 직접 했지요. “애, 꼭 선생님을 벌주어야겠니? 널 귀여워 해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인데 꼭 벌주어야 하겠어?” 그랬답니다. 그때 아이가 여전히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걸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점잖은 척 하면서...” 아이는 불신하고 있었지요. ... 그래서 판사가 실형을 선고했지요. 현직 교사에게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직과 성직에 대해서만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니 그런 판결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 성폭력상담소를 나온 것은 약 1시쯤.

우리들은 서초구 교대 부근에 있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성폭력 상담소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인데, 직접 상담소로 오지 못해 우리가 방문한 것이다. 여기서는 P씨 하고만 대화를 진행한다고 했으므로, 우리들은 밖에 나와 있어야 했다. 사무실에는 3인 정도의 직원들이 앉아있었고, 유리로 덮힌 책상에는 [상담료 30분당 5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40여분 뒤 P씨가 나왔다.

내가 물었다. “P씨도 아까 그 초등학교 6학년처럼 단순해요?” 난 아까 들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P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실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천천히 들린 목소리였다. 하늘이 어둡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원 : “점리씨는 학교로 가시고”

남 : “예, 회장님한테 보고해야죠.”(웃음)

원 : “P씨는 집이 어디예요?”

백 : “신당동... ‘떡집’(웃음) 있는 데요.”

나는 믿을 만한, 더 좋은 복악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왔다.

1997. 3. 29

원동엽(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3. 대학원 학생회장)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를 함께 해 나갈 때만 밝히고자 하는 진실의 모습을 보고, 최종적인 진실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자과에 바란다.

전자과 선배가 후배에게 드리는 글

29대 대학혁명 총학생회장 전자공학과 93학번 신훈

복악의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기도 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친구이기도한 여학우에 대한 사랑은 이 사실 자체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미쳐질 영향이 선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대학내에서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계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수없이 많은 편견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로인해 처음부터 무성한 말들이 오가게 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이전에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관계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서로의 인권은 존중되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한국사회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대학에서 마저 여성에게는 남성들에 의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일방적인 권위와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 공학과 학우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전자공학과와 모든 구성원이 대학사회에서 마저 존재하는 성차별과 권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에 대한 기성사회못지 않은 환멸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이듯 교수와 학생 또한 학원의 일주체로서 바라봅시다. 대학내에 존재하는 보수적 권위와 성적인 구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전통적 가치관으로 자리잡혀온 남성의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공히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기에 대학공간에서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교수는 모두가 대학의 일 구성원으로 복악발전을 가져가야 하는 주체들입니다. 여태까지 존재했던 학교당국이라고 하는 몇몇 교수님들의 독단적인 계획안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을 공통된 이해와 요구속에 민주적인 학교발전의 상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자의 모습만이 아닌 학생회를 중심으로한 학생자치의 심각한 침해를 당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학생자치권의 수호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언제나 사회에 중심에서 현실의 모순을 가장 먼저 깨닫고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청년세대 특유의 실천으로 다양한 실험과 모색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학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복악은 지형만큼이나 폐쇄적이며 권위적이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공학과 학우들의 선도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학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극복하고 학원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되기 위한 학생자치권 수호투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기계설계학과 졸업생

김성한 드림.

전자공학과 학생회 편집국에서 1997년 4월 14일자로 발행한 「바다[★] 개구리」라는 신문 첫페이지에 송우씨의 글을 읽게 되었고, 몇가지 꼭 드릴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이제부터 송우씨의 글을 읽고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만나볼 수 있었던 극히 제한된 전자과 학생들의 생각,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얘기의 순서는 송우씨가 언급한 순서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씨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과 학생들도 대충 어떤 시달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구요. 그러나 대책위에서 부착한 대자보를 얼마나 많은 전자과 학생들이 보았는지, 그 대자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자보가 그럴 정도로 오래 부착되어 있었는지, 수업시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수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갔었는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의문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여타의 과학생들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한 얘기들을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소문이 돌 수도 있겠지요. 또한 송우씨의 얘기처럼 현재 전자과 내부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 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학생들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본인의 진술서와 피고소인 송교수의 자백내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아니 확인까지 된 사실만이라도 어느정도 까지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수분들과 대학원생, 학생들 중의 일부 그리고 이젠 송교수의 부인까지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까지 우기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움츠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고만 하지, 공개하려 들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루머들, 확인되지도 못한 유언비어들, 사적인 만남을 통해 은밀히 전파되는 소문들만 무성히 쌓여가고, 묻히고, 더 이상 관심도 없다는 듯한 냉소적인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자과에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확인된 사실만이라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과정에서의 송교수의 자백내용, 육성으로 녹음된 테이프 등등은 쉬쉬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용기와 순수함만으로도(이것이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사실만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못한 얘기를 구분할 수 있는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송우씨는 개인의 생각으로 이번 글을 쓰셨지만, 명의는 전자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우씨는 전체 전자공학과 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대표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않으셨다면, 학우들에게 치유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만이라도 공개해 주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대

전자공학부 학생회에 게 드리는 글

전자과에 바란다.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내가 아닌 남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오타가 난건지, 착오가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명은 고소인이고 또 한명은 피고소인 상태입니다. 대학원생과의 간통여부에 대해서 얘기하시려 했다면 이미 고소인 진술도 없었던 연극이었고, 만약 고소취하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맞고소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고소취하되어 P 학우가 4월 22일 남부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임)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피고소인은 오직 송교수 1명 뿐입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무슨 자랑거리인 양 외부에 알리고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남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와서는 송우씨에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서로의 생활이 다르다 보니 시간과 지면상으로 생략하겠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번만이라도 눈길이라도 쬐보시기를 당부드리고, 교양과목을 수강하셔야 한다면 여성학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송우씨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민대라는 가족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전자과라는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송우씨의 의도와는 무관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송우씨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넓게는 학교 전체, 적게는 전자과로 규정하시면서 가족내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셨습니다. 물론 송우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러한 내용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데 있어서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사건 은폐에 부채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자신이 이번 사건을 수모와 모욕,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공론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교수는 자신의 범죄행위중 성추행까지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송우씨! 여기에서부터 사실여부에 대해서 흔들리고 계신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P 학우가 이미 공론화를 결정하였다면, 그래도 송우씨는 소문나기를 두려워 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축소시키는 논리에 도움줄 수 있습니다.

전자과만의 문제로... 일차적으로 전자과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송우씨 얘기대로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번 국민대 성폭력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는 P 학우 뿐입니다! 송교수 부인도, 전자과 대학원생도, 전자과 학생들도, 국민대학 전체도 송교수에게 강간/성추행 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전자과 학생들만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남존여비의 유교적 봉건성, 낡고 케케묵은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갇혀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반경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사건의 쟁점,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

자고하는 테두리 내에서 논의 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S교수를 우리들 맘대로 퇴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S교수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현상태에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전자공학부 학생회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 왜 이런 글을 학생회 신문에 쓰셨는지, 그리고 왜 대책위 회의시간에 참여했다가 시간없다고 나가버리셨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마구 쏟아지는게 사실입니다. 그 신문이 4월 14일자 신문이기 때문에 그 글은 승우씨가 참여했던 대책위 모임 이전에 쓰여진 것이고, 지금 승우씨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선 송교수는 당연히!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만이라도 시인하였고, 이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퇴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문제거리가 될 수도 없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복약의 일만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합니다! 동료 교수분들에게도 전자과 대학원생들에게도, 국민대학 교직원들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오만한 행동과 백 학우의 부모님, 친지분들에게 했던 짐승만도 못한 폭언들에 대해서도 사죄,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 학우에게 직접 무릎꿇고 거짓없는 반성과 백 학우의 용서를 진심으로 빌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과연 이 사건의 해결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외압으로든, 로비를 통해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신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을 얘기하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학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사건 자체의 학내 수습이라는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된 성질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해결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송교수의 즉각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서라도, 또한 새로 들어올 신입생 후배들에게 최소한 몇몇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 성폭행사건 대책위가 꾸려진 것이고, 4월 14일자로 부착되어진 성명서를 게시했던 겁니다. 다시한번 읽어봐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함께 매진합시다.

"결국 우리는 이 일을 크게 떠들고 다니기 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조금씩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웁니다. 냉철한 판단과 우리의 주장을 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에

학생회장께서는 귀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소문과 백 학우의 사생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요번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정말 올바른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토론을 암묵적으로라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견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크게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냉철한 판단과 주장을 펴는데 무리가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너무 의사표현의 행위가 방해당해 왔기 때문에 대책위가, 아니 전자과 자체도 너무나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전 소문과 유언비어만 무성한 상가집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씩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가족 내에서 생겨난 불신과 앙금,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전자과에 바란다.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치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제13대 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이 승우

제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과 내부에서 만큼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며, 빠른 시일내로 무관심의 벽을 허물어내야 할 것이라는 전자과 학생회장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과 가해자 송교수의 자백내용 만큼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전자과 학생회장은 이 사실을 공포해주시어야 합니다.

* 대자보 강제철거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지 외압을 받은 학우들이 먼저 자신이 경험한 일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는 것이 중요 합니다. 피해자는 오직 백 학우 뿐이며, 전자과 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 송교수는 지금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또한 공개사과와 이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 따로! 학내 교정 따로 말입니다.

* 치유할 생각 이전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 되면 학내에서 해야 할 처벌을 이미 송교수 자체가 교수의 직분을 망각했다는 것을 시인하였고, 학생들 역시 학생신분이 아닌 대등한 인격체로서 사태를 해결해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자공학부 편집국에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음에 발행될 학생회 신문 1면에 왕씨가 3월 11일 간담회때 제출했던 내용과 덧붙여서 P 학우의 반박글을 동시에 실어주시길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는 저희 대책위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과 내부의 정의롭고 진실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 전자공학부 학우들도 학내 성폭행 사건 대책위와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원동업 (대학원 총학생회장) -

p씨에게 왜 여관까지 따라 들어갔느냐하는 것에 의문이 가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p씨가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지난 3학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들과 함께 실험실 생활을 했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이다. p씨가 소속했던 전자공학과는 알다시피 여학생의 비율이 5% 이내이고, (다른 공대나 자연계열과 같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대개는 대학원생인 조교를 의지하게 된다. 실험 좋은 이들은 많은 교수와 지속적인 접촉을 갖게 된다.

대학원생들은 겉에서 보기에 장미꽃색 핑크빛이지 공부를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대단히 크다. 대학생들보다 20% 가량 비싼 등록금, 자신의 학문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 밖에서 주어지는 과중한 량의 프로젝트와 조교 업무, 이미 성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이중삼중으로 대학원생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학원을 버려나가는 유일한 목표는 학위. 그 '고상하고도 알량한' 석사·박사 학위가 이들이 최소 2년에서 10여년까지 더 학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위를 주는 일에 담당 교수나 같은 과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이것은 대학원생과 교수간의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로서 학문적인 연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반면에, 전혀 왜곡되어 표출될 경우 학생을 사유물화 하거나, 종속과 지배의 부정적인 일들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이 고쳐야할 문제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 부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여건도 부실하고, 교수도 학생도 각각의 자율적인 판단 속에서만, 혹은 관행 속에서 사제지간의 관계가 위태롭게 유지된다.

이러한 점은 94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후 다시 서울대를 흔들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정아무개의 '교수에 의한 성추행 공개 대자보', 그리고 국민대학의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에서는 매우 파행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연히도 전부 공과대나 자연계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들은 (피해자들은 물론 여성들이고, 우조교가 화학과, 정모씨가 약학 대학원, 그리고 p씨는 전자과 4학년생으로 대학원 시험을 합격한 상태였다.), 가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이들 피해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 1일자 9대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서울대 약학대학원 박사과정 정모(35·여)의 성추행 사건 또한 전체 대학원생들을 분노케 한다.(정씨의 말이 많은 부분 사실이라는 것이 자체의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 드러났다고 하니) 정씨를 성추행했다는 교수는 이미 8년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씨에게 대학원생으로선 감당해 낼 수 없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대단히 흥분해서 한 말이겠고, 그런 말이야 기록으로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니) "(네가 내) 발가락을 핥을 정도가 아니면, 네가 박사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는 것이고 "네가 쥐야, 나도 준다.(?)"는 식의 이해하지 못할 말을 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어차피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육체적인 완력을 동시에 이용해 행사하는 폭력이므로 이런 사태가 새로운 것일 수도 없다. 다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대학원 공간이 어쩌면 가장 권위적이고 모순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한다. 이런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교수가 그 힘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를 스스로 부수었다는 것이 한없이 가증스러운 것이고, 동시에 한없이 대학원생들의 신세가 안타까운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피어날 우리의 학문에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
번
사건
의
배경
이
되는
대
학
원
의
현실

INTERVIEW

1.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 참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간통고소사건과 루머에 시달렸고. 친구들은 모종의 협박을받았고. 거기에다 알려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겁도 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이번 일만 아니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시기에 밖에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죠. 거기다가 내가 대학 생활의 절반을 할애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현재 대학원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가해자로 몰아세울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진정되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접하면서 작년에 겪었던 일을 정리하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현실적으로 냉철히 불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약능제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약한 것으로 능히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판이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보수적인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한동안 '간통고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취하되었는데,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심

☞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불쾌해요. 거기다 송교수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두렵더군요. 검사 조사중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나에게 시인하라고 말하는 검사 앞에서 또 한 번의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었어요. 게다가 연구실에 있을 때 송교수 연구실 사람들과 더불어 이모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모씨가 왜 그랬는지 용납이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송교수만의 문제였지만 이 일에 끼어들은 이모씨나 최모씨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구요. 사건을 흐려놓고 불리하다는 생각에 발뺌하려는 것. 참으로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3. 얼마전 평소에 친한 사이로 지냈던 이모씨(학교교직원)가 간통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모씨 본인이 간통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종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송교수가 개입하였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 앞에서 말했지만 참으로 아비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생각돼요. 제가 최모씨와 친했던 것처럼 왕모(전자과 대학원생)학우도 이모씨와 친했는데 그럼 그것도 간통인가요? 상황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답답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송교수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억이 오르고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었구요. 거기다 전 이모씨에게 송교수가 저지른 일을 숨김없이 말할 정도로 믿었는데 말이죠. 권력이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본인께서는 전자공학과 송교수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현재 법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 검찰 수사중으로 조만간 송교수와 대질심문을 받을 것인데, 송교수가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대책위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 참 많은 사람에게 저의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요. 저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더 이상 불미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임시적이 아니라 상시·영구적으로 마련하는 싸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6. 마지막으로 복약의 모든 학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성폭력이 잔인한 것은 대인관계에 많은 침해를 받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 겁부터 나서 지독할 정도로 마음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대책위 사람들과 만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복약이 깨어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 복약이 의식이 있고 깨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참으로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공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배움터가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어느 곳도 자유롭지 않을거예요. 우리는 이상과 꿈이 있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젊음이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시구요. 세상의 모든 빛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4월 24일(목) 늦은 9시에
총여학생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반박의 글

P학우가 학교로 강간사건을 알려왔을 때, 그리고 총여학생회와 공대여학생회에서 대자보 작업과 유인물 배포를 하였을 때, 그때부터 P학우에 대한 안종은 말들이 나왔으며, 송교수 휘하의 대학원생들은 이상한 진술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팡팡' 찍어 3월 11일 간담회에서 돌리기도 하고, 비공식적인 통로로 학우들에게 알렸으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송교수 휘하의 대학원생들이 썼던 진술서를 한 번 보자. 그리고 이 글에 대한 P학우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을 해보자. 먼저 대학원생들의 내용증명서는 잘못된 맞춤법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으며 실명으로 들어간 부분은 필요에 의하여 수정했다.

1. 96년 6월 26-27일

실험실 현황 : MPC사업준비와 Mixed-Signal 연구중

최모씨 : IDEC 교육예정 (6월 26 ~ 6월 27)

P : 학교오기로 하고 오지 않음 (6월 26)

최모씨와 P가 함께 대전 교육 다녀옴 (6월 26 당일 전화음). 이전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음.

2. 7월 24일

Tanner's Tool 사용자 기본교육차 대전 ETRI에 감.

P와 최모씨가 한차로 왔으며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

이때 상황도 전날 최모씨는 회사일로 오지 못한다 하였음. P와 함께 가려하였으나 그냥 집으로 갔고, 저녁 늦게 P와 함께 간다는 최모씨의 말을 들음.

3. MPC 사업 준비중

P가 담당업무(L-Edit) 태만에 대해 질책(성식 업무대행), 최모씨는 일방적으로 P의 편들며 화내고 같이 나감.

4. P와 최모씨 2층 연구실에서 같은방 사용

이때, 최모씨는 P가 자기와 하는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말고, P는 최모씨를 제외한 다른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다고 최모씨가 선포함

이때, 최모씨와 P가 사용할 2층 침대를 구입하였고, 그 침대에 사용할 전위차 치료기와 이불, 신혼부부용 베게 2 set를 구입

5. 안모 사건

안모씨, 최모씨, P, 김모씨 술자리를 같이함.

안모씨 공대 2층과 1층에서 부상 (약 40바늘) → 최모씨와 실랑이

P 진술 : P 문제로 안모씨를 최모가 구타 (증인 다수)

왕 모 씨 의 진 술

6. 10월 중순

최모씨와 P가 같이 나갈 때 P가 공대 2층에서 최모씨의 팔장을 끼자 주위를 인식하고 최모씨가 팔장을 풀음.

7. 10월 23일

최모씨와 P를 제외한 실험실 사람들은 최모씨와의 문제로 인하여 방에서 최모씨와 P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실험실을 나감.

10월 26일부터 교수님 논문과 project 보고서 관제로 임시적으로 방에 들어와 일함.

10월 28일 최모씨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으로 다시 들어옴.

최모씨와 P와의 관계를 교수님에게 전달한후 실험실 사람들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 도움을 요청함.

→결과 : 최모씨는 5층 교수님방 생활을 하게되었고 P는 2층 교수님방에 남음.

이때 교수님은 P와 최모씨와의 교류를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함.

그러나 P와 최모씨와의 교류는 계속되었음.

8. 11월 말경

P 종이 봉투에 책들을 씌.

이때, 실험실 사람들은 P가 대학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함.

9. 그 이후 거의 실험실에 들어오지 않음.

시험공부와 레포트, 학부졸업논문으로 인하여 실험실에 들어오기도 함.

10. 12월 초

교수님은 P에게 앞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CAD Tool을 사용해 보라고 함.

2~3일 정도 하더니 그후 그 Tool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음.

97년 2월 초순 이 CAD Tool은 결국 교수님의 지시에 의해 이모씨가 하게 됨.

위의 내용 이외에도 초저녁에 같이 나가서 다음날 새벽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학교 실험실에 만나오고 있을 무렵 집에서 P를 찾는 전화가 자주옴. 집에서는 학교에 있는 줄 알고 있음.

회사일이 바쁘다며 일찍 학교에서 나갔으나 부인인 이모씨 역시 최모씨가 학교에서 잠을 잤냐고 물어봄.

P의 기계과 동기에 의하면 최모씨와 P는 자주 시외각에 나가서 밥먹고 술도 마시고, 때론 여관에 가서 같이 자기도 하였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함.

P, 최모씨가 토요일 오후 공대 PC실에서 술먹고 노래를 불렀다고 함. (공대 수위)

진술자 : 왕XX, 임XX, 이XX, 이XX

왕 모 씨 진 술 에 대 한 반 박

3월 11일 학생처장의 주선으로 이번사건에 관련한 사람들과 몇몇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비공개적인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이날 송교수는 여관에 간 것을 시인 했으며, 이씨는 간통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직접 쓴 서면을 이씨가 가지고 왔다. 왜 간통죄로 고소한 부인에게 자신의 글을 보냈으며, 직접 나오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비공개적 자리라는 이유로 몇몇 학생들이 쫓겨나게 되었으나 송교수의 대학원방 사람인 왕씨와 임씨는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발언까지 하게 해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날 왕씨가 한 말에서 P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 그는 P가 최씨와 내통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내용증명서까지 만들어 왔다. 그가 만들어온 내용들의 틀린 점들은 다음과 같다.

왕씨 이하 몇몇 학생들의 글중에서...

1번 내용 - 96년 6월 26~27일 - P와 최씨가 단 둘이 대전에 갔으며 아무도 몰랐다고 하지만 P는 집에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날 송교수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대전에 두 사람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MPC사업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25일까지 제출해야되는 연구였으나 포기했으며 제출하지 않았다.)

2번 내용 - 7월4일 - P학우는 전날 저녁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와서 다같이 출발을 했으며 최씨의 차가 고장이 나서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3번 내용 - MPC 사업준비는 5, 6월에 있었으며 이때 왕씨와 최씨의 사이가 나빴으며 자주 싸웠다. P와는 무관한 일이다.

4번 내용 - 9월 중순 - 교수의 권유로 다같이 쓰던 방에서 교수와 최씨가 쓰던 옆방으로 P가 옮기게 되었다. 최씨와 P가 단둘이 방을 쓰고 둘이 같이 잠잔 것처럼 쓰여 있는데, 침대 구입 후 얼마 안있어 최씨는 침대를 가지고 5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대를 사용한 적은 없다. 그리고 교수와 같이 쓰던 방이고, 원래 큰 방을 두 개로 나눈 것이며 옆방과 통하도록 되어 있다.

5번 내용 - 9월 21일경 - 점심을 먹으러 4명이 나갔으며 이날 최씨와 안씨의 싸움은 술을 먹고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고, 사건은 학교에 들어와서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생긴 일이며 P의 문제로 최씨가 안씨를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싸움이 벌어진 시간대에 P는 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조금 경과한 후엔 현장에 내려가볼 수 있었다.

7번 내용 - 10월 17일경 - 왕씨와 최씨는 대학원방의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워크스테이션의 PASSWORD를 바꾸고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등 심하게 다뤘다. 거기다가 왕씨는 교수의 수업도 그 때까지 거의 다 참석하지 않았다. 송교수가 이를 알고 분개하여 왕씨(당시 학부 4학년)와 이 씨(당시 학부 2학년)를 내쫓았다. 최씨와 임씨는 대학원생(석사 2학기)이므로 약간의 말로 꾸지람을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씨와 P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실험실

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일 교수는 다시 왕씨, 이씨, 최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에 22일 대학원 수업 후에 실험실을 재배치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10월 23일, 24일 양 이틀에 걸쳐 실험실을 재배치하고 왕씨는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실험실 생활을 하였다.

9번 내용 - 11월 - P학우는 실험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쓰여 있는데 11월 2일 HSPICE를 인스톨하고 11월 4일부터 MIXED-SYSTEM에 대한 기초 논문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1월 20일 대학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냈으며 11월 29일 대학원 시험을 보았다.

10번 내용 - 12월 초 P는 기초 논문 정리만으로는 project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김동명 교수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한 다음 인터넷을 이용해서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 자료를 얻어 송교수에게 보였다. 그리고 TMA라는 회사로 연락하여 학교로 엔지니어를 보내주기를 요청했다. 12월 6일 송교수는 엔지니어를 만나본 후 1200여만원 하는 프로그램을 가계약하였다. 12월 10일 프로그램이 학교로 배달되었으며 11일 - 사건발생일 이후 실험실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 97년1월 10일 - 왕씨와 P학우는 학교앞 호프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씨는 실험조교 신청을 대신해 놓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실험실에는 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 이유를 물었다. 대답을 하지 않자 왕씨는 교수가 지난번에 했던 일과 유사하다고 물었다. 그것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간을 꺼내 씹어도 시원찮을 것라는 말에 왕씨는 대학원을 그만 두기를 권했다. 그만둘 수는 없다는 말에 일단 휴학을 권하고 취직준비를 하라고 했다. 왕씨는 교수께 편지를 쓰면 직접 전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좋게 헤어지자고 했다. P는 예전에 왕씨와 싸웠고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불쾌했던 사실에 대해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다음에 만날 때는 웃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헤어졌다.

- P의 기계과 친구 안학우는 왕씨에게 P가 최씨와 자주 여관에 갔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왜 왕씨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학우가 왕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은 딱 한 번이며, 그때 여관운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 공대 PC실의 열쇠는 수위 아저씨만이 가지고 있다. 토요일에 최씨가 공대 PC실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으며 그런적은 전혀 없다.

덧붙이는 말

왜 왕씨는 거의 대다수가 신빙성도 없는 거짓말과 사실을 날조하여 같은 동기 여학우를 구렁속으로 몰아 넣는 것일까. 송교수는 실험실에도 나오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P를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오히려 송교수는 P를 붙잡고 박사학위까지 뒤를 봐주겠다고 말했다. 예전에 자기 project를 매우 열심히 하는 왕씨(?)는 실험실에서 내쫓았는데 말이다. 현재 왕씨는 송교수와 어떠한 관계인가. 송교수의 모든 일은 왕씨의 손에서 나간다. 송교수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왕씨가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관계가 비단 사제지간이라고만

반박의 글

할 순 없을 것이다. 거짓은 어차피 밝혀지게 되어 있다. 난 지난 한해 동안 실험실 사람들을 아버지같이, 형같이, 친오빠같이 믿고 따랐으며, 지금도 어느 정도는 친분의 정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왕씨가 아니다. 어차피 판단은 제3의 여러 사람들이 할 것이며,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나도 송교수도 그 방의 연구실 사람도 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금을 내어 이중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대학원생들의 글과 그에 반하는 P씨의 글을 읽어보았다. 먼저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원생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는 그들의 글에는 P씨가 학업을 게을리했다는 내용과 최씨와의 관계론 이야기하는 것이 추가 된다. P씨가 강간을 당한 것과 학업을 게을리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른 전자과 학생들의 이야기들 들어봐도 P씨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또한 최씨와의 관계론 주되게 이야기한 것은 간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 하는 것이리라. 이것은 일종의 인신공격이다. 그리고 간통사건이 거짓과 의혹으로 가득차있는 것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그들 역시도 일조한 것이 된다. 만약 최씨와 P학우가 친하다는 이유로, 대학원방에서 소외된 한 여학생이 친절하게 대하는 선배와 친하다고 해서 그 친절을 빌미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색안경끼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모여서 수근거리기 좋아하고 낯의 트집잡기 좋아하고 뒤에서 안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달들과 다들 바가 없다.

왕씨는 2월 21일 총여에서 불인 대자보를 보고서는 총여로 무리들 이끌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노가다밖에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었을까? 송교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등록금을 내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었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그들의 행동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그가 거칠게 키스하면서 손을 내 가랑이 사이로 쑤셔 넣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커트가 내 팔을 붙잡고 있는 동안 대니가 손으로 내 입을 막고는 내게 그 짓을 했어요. 난 눈을 꼭 감고 있었죠. 대니와 커트가 교대로 그 짓을 하는데 '학생나리, 가서 해치워'라는 소리가 들렸고, 커트가 날잡아 누르고 있는 동안 밥이 그 짓을 했는데, 사람들은 웃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며, 난장판이었어요.” 사라의 흐느낌이 법정을 울렸다.

- 영화 [피고인] 중에서

성폭력은 파시즘이다. 성폭력이 살인이라는 시각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살인행위란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제도폭력이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산물이지, 갑자기 난리난 듯 도덕심이 땅에 떨어져서이거나, 해외로부터 유입된 괴물이거나, 특정인에게만 발견되는 그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다.

91년 1월말 전북 남원군 주천면. 나이 서른의 김부남씨가 중년의 남자를 칼로 찔렀다.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동네 구멍가게의 주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그녀는 무려 21년 만에 칼을 쥐고 '복수'를 했던 것이다. 김부남씨는 그 날의 충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꼭꼭 묻고 살았다. 심한 대인기피와 혐오증으로 이유없이 화를 냈고, 걸핏하면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아홉살 때의 충격은 그녀에게서 정상적 삶을 앗아갔던 것이다.

인간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가 대개 그러하듯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 이면에는 광범위한 제도폭력이 자리잡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개개인 간의 살인 횟수는 전쟁을 통한 살인의 횟수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만일 개개 폭력에만 귀착시킨다면 우리가 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셈이 된다. 성폭력을 청소년문제, 성개방풍조, 과다노출, 윤리의식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언론의 시각은 성폭력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상적인 문제 지적만으로 제도폭력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도폭력은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동조받고, 찬양받고, 심지어 문제의 대안으로 나서기까지 한다. 성폭력에 대한 논의, 특히 언론의 시각은 제도폭력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부족한 글쓰기는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성폭행 관련 제도의 문제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제도의 산물이며, 제도를 재생산시키고 있다는 점을 논함으로써, 성폭력은 파시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내 주변에서 강간미수사건이 있었다. 그 때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여성에게 한다는 말이 가관이다. 내가 변호사인데 법대로 하자, 자기 아들이 일류대 모범생인데 어딜 넘보는 짓거리라며, 오히려 큰소리

제도폭력의 산물 . 성폭력

를 쳤다. 피해자의 애인이 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찌지도 못하고 그녀와 함께 분통만 터뜨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항상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95년 5월 12일자 주요 일간신문에는 성폭행혐의 무죄판결 기사가 실렸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주위 사람들이 곧 알아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단지 손으로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케 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는 현행 성폭력법이 성폭력 범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보는 한 성폭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인 여성들이 오히려 정조를 '잃은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사회적인 인식이나 주변 눈길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는 외국의 예처럼 가해자 남성이 자신이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중요 범죄인 강도/살인/방화중의 하나임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치 않게 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유일하게 [친고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고율이 2%에 불과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성폭력 국가라는 현실이 말해주듯 피해자가 법정에 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는 조장한다는 혐의를 벗어 던질 수 없다. 언론보도 또한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성관계의 일부로써 받아들여짐 독자에게 은연 중에 전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사 전체는 가해자가 설령 무혐의이며, 그 기사 자체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기한 예들의 가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뿐이다.

최근 정부가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문제 접근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현실적 고통과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인정하는 신문이라면 기사의 선정성에 매몰되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좀더 신중하게 파헤쳐 문제점/대책 등을 심층 취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언론은 최근 일련의 성폭행 관련 보도에서도 확인되듯이 독자의 오락거리로써 사건을 소실화시킨 뒤, 면피용인 적당한 흥분과 개탄/대책을 말할 뿐이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국민들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보상을 주고 끝나는 일회성 기사가 아니라 너무나도 산적한 사회 문제를 심층에 깔고서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제도개선만으로 성폭력 근절이 이뤄지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 이유는 오

랜 구체도는 우리 의식 뿌리깊게 남녀차별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은 남녀차별의 심각한 현실을 타파하고, 남녀평등 노력과 병행하는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영뚱하게 반박당하거나 왜곡된다.

지금, 채 태어나지 않은 여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기회를 박탈 당하고 한 강물에 버려지고 있는데도 성차별의 현실 인식과 대책으로 소위 '남자는 배짱이요, 여자는 절개'라는 식의 [문화론]을 그들에게 들이민다면 그들은 전후 서구에서 논의되다 퇴물이 되고만 것대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있다며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론]의 역사는 우리 나라의 역사에 비춰 보자면 기껏해야 500-600년에 불과하며 그 조차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임진왜란 후에 국가가 내린 포상시 충신, 효자의 수에 비해 월등하게 열녀의 숫자가 많은만큼 그 부작용과 기준이 비인간적이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국가체도의 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한 열녀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가.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붕괴를 타하며 전통적 가치체계의 복원의 핵심은 열녀제도가 가지는 함의가 오늘날에도 대안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근대적 여권의 개념과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적 문화의 측면을 살리지 못할 망정 근대적 여권에 대한 비아냥이 되어선 곤란한 일이다. 문화론자들은 역사적 단계가 한국보다 일찍 시작한 서양에서 여권이 먼저 등장한 것이지 서양문화 자체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의 최대 약자인 여성이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라는 참된 함의를 악용하는 전통론자의 반대편에 서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일부 종교계의 행동도 문화론자의 범주에 포함될 법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짜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된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결혼 전까지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굳게 지킬 것을 하느님 앞에서 부모님과 여러 선생님을 증인으로 삼고 엄숙히 서약합니다"고 서약한 뒤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며, 행사를 마친 학생은 '순결을 지킨 사람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서약식은 94년 10월 이후로 특정 신문의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교회, 학교, 군대에서 벌여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행사의 취지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 성윤리 상실 회복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여러 선생님과 하느님 앞에서 서약할 수 없게 되며, 사회에 나가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대략 매해 25만 명의 여성들이 성폭행 당한다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서약은 성폭력의 가장 큰 과제인 인간 생명 존중과 인간에 대한 예의보다는 순결에만 치중케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랫동안 잔존한 희대의 거짓말 처녀막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순결에만 치중케 하다보면 자칫 성에 대한 혐오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연스런 성보다는 금지된 성을 부추기게 되어 순결을 강요하는 행동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보다는 비뚤어진 태도를 유발하게 할 수 있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는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남성만이 성의 주체이며, 성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여성은 성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여 의례적으로 거부해야 하거나 죽음과 순결을 맞바꿔야 하며, 성은 늘 어둠침침한 곳에서 일어나는 암울하고, 말 못할 것이라는 성관계는 뿌리깊은 남녀불평등관계를 조장시켜 결국은 성폭력을 재생산시키는 훌륭한(?) 토양이 되고마는 것이다.

일부 유교론자와 일부 기독교도가 유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뜻깊은 함의를 외면하고, 남녀불평등관계를 직시하기 보다는 남녀불평등관계를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

남녀불평등관계를 조장하는 이들이 이들뿐만은 아닐 것이다. 언론이 진정으로 남녀차별의 모순을 느끼고, 남녀평 등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시각들을 양비론의 입장에서 공정 보도한다는 식보다는 그들의 본래의 뜻을 되새기게 하며, 사회현실의 문제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들을 분명히 직시한 후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파시즘은 자유를 성취하려는 참된 노력에 해를 끼치는 정치당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빌헬름 라이히에 따르면 그의 책 <파시즘의 대중심리>에서 파시즘이란 권위주의적 기계문명 속에서 억압된 인간의 정서적 태도이며 기계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생활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파시즘이 성적 도착으로부터 생기는 광적 신앙을 옹호하며,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를, 기대하는 고통의 철학에서 가학적 살인의 현세 철학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만일 우리가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론]에 동의한다면, 성폭력은 파시즘의 다른 얼굴이지 않을까? 성폭력은 인간의 일부분을 훼손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은 인간 전체를 망가뜨린다. 성폭력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인권무시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가부장제의 노예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가부장제의 노예상태로 만들고 싶어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가부장제의 권위, 남성 우월주의를 갈망하는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열패감을 폭력적으로 성취하려는 소심한 인간이다.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시체로 만드는 행위이다.

성폭력은 시체에호증처럼 인간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되어서야 가능해지는 파시즘이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는 파시스트이며, 그의 정신성은 그저 본능적인 충동에 휩싸인 저능아나 변태가 아니라 파시스트의 정신범주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파시스트의 정신성은 노예상태에 있으며, 권위를 갈망하는 동시에 반역적인 소심한 인간이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는 파시스트의 성격을 그대로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접근은 파시즘과 성생활 과정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응수될 때만 성폭력은 괴멸될 수 있다. 성폭력은 단순한 살인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살인행위, 즉 파시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나는 언론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누군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한다면 언론은 당시 상황을 말로 표현하게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 한 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누군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권위에 대해 복종하라고 말한다면 언론은 계급과 직위와 연령과 성별을 떠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안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누군가 갖은 폭력을 다 동원하여 한 인간을 파괴시키고 나서도 부족하여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언론은 파괴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왜곡된 시각으로 성폭력에 접근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성자체를 금기시하거나, 혹은 남녀의 성체위나 기교만을 강조하거나, 여성을 아이만 낳는 기계쯤으로 치부하는 세태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언론은 성생활의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한 주체로써 안전하고 즐겁게 영위하는 바람직한 성생활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후천성 병어리가 되어 침묵하다가, 성질 급한 냄비처럼 들끓다가, 결국은 슬픈 바이올린 연주처럼 사건의 결말을 보여주지만 하는 일이 언론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총련' 관련 연행사태에서 일어난 연행 여대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총련'사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언론이 이를 침묵한다면 언론이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2류 지방신문이었던 [워싱턴 포스트]를 일약 '세계의 신문'으로 부상시킨 원동력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윤리강령의 핵심인 '진실보도'였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지양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인권말살은 거듭될 것이다.



■ 주장

성폭행 사건이후 학교측은 성폭행사건 대책위 명의로 나간 대자보를 불법 철거하고, 성폭행 사건 대책위의 조직적인 선전 활동을 학생과 선생님이나 수위 아저씨들을 강제하여 방해하고 있다. 기간에 학교 당국은 불법적 대자보 철거 이외에 강간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피해자의 친구들을 협박하거나 집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 활동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교직원을 통하여 있지도 않은 간통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처럼 학교측은 성폭행 사건이후 강간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철저히 은폐, 왜곡 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성폭행 사건이 학교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대학사회나 여타의 사회관계 속에서 지켜온 국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성폭행 사건 대책위의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학교측은 지난달 30일 송명호 교수의 자진 사퇴서를 수리하여 강간사건을 더이상 학교내의 문제로 삼지 않고 송교수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강간사건을 한정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월말에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청와대에 강간 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대학교 대학 본부는 민원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낸 바 있다. 학교 당국은 이 문서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여론재판이나 집단행동 또는 외부압력은 온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어느 일방의 주장을 듣고, 진상을 예단하거나, 성급한 조취를 취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학교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은폐, 왜곡하고 가해자인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옹호하고 교수를 보호하려 하는가! 더군다나 검찰이나 사법부에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여론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 특히 지성인들의 집단인 대학사회 내에서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지점이다. 또한 이 땅의 공권력과 법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것이지 권력관계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것은 아니다.

국민대학교는 『해공선생은 가족적 사랑과 진실을 강조하는 “以校爲家 事必歸正”을 교훈 삼아, 심오한 학문연구, 건전한 정신배양, 국민적 지도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곡선생은 교육의 근본을 민족, 산업, 문화, 인본에 둘 것을 강조하였다. 두 분 사상의 공통점은 민족의 장래와 개인의 품성을 함께 생각하며, 학문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중시한다는 것이다.』라는 교육 이념답게 50년의 역사를 이승만독재, 군부독재, 문민독재 타도와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항하였다. 두 분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학의 선구자였다. 이에 우리 국민대학 50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선구자들의 제자인 우리 학생들에 의하여, 즉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수가 학생을 강간하는 것이 가족적 사랑이고, 강간사건에 대하여 은폐, 왜곡 시키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교수가 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은폐, 왜곡하는 학교 당국이야말로 두 선생님의 학교 설립 이념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당사자이다. 학교 당국은 송씨의 자진 사퇴서를 반려하고 송씨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간통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징계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진정 학교의 명예를 세우고 무너진 사제지간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길일 것이다.

이제 학교 당국은 강간 사건에 대한 은폐, 왜곡 음모를 철회하고 학교의 명예를 세우고 학우들에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당국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학교 발전과 학교 명예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강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송씨의 사법처리, 그리고 다시는 이러 사건들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인식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국민대 성폭행 대책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폭행
사건
의
진상에
대한
은폐,
왜곡
이
학교
의
명예를
지키는
일인가
!!

인권 자료집		
등록일	유기호	자료번호
98 2/29	A8-2	90

성폭행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은폐/왜곡이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인가!!

국민대 학교당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성폭행사건 대책위' 명의로 나간 대자보를 불법철거하고, 성폭행사건 대책위의 선전활동을 학생과 선생님이나 수위 아저씨들을 강제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 기간에 학교 당국은 불법적 대자보 철거 이외에 강간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피해자의 친구들을 협박하거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활동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교직원 을 통하여 있지도 않은 간통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처럼 학교측은 강간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은폐/왜곡 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성폭행 사건이 학교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대학사회나 여타의 사회관계 속에서 지켜온 국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성폭행사건 대책위'의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학교측은 지난달 30일 송명호 교수의 자진 사퇴서를 수리하여 강간사건을 더이상 학교내의 문제로 삼지 않고, 송교수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축소시키려 한다.

지난 3월말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에 이번 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대학교 대학본부는 민원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였다. 학교 당국은 그 문서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여론재판이나 집단행동 또는 외부압력은 온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어느 일방의 주장을 듣고, 진상을 예단하거나, 성급한 조취를 취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학교당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은폐/왜곡하고, 가해자인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옹호하고 교수를 보호하려 하는가! 더군다나 검찰이나 사법부에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여론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 특히 지성인들의 집단인 대학사회 내에서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

국민대학교는 사랑과 진실을 강조하는 “以校爲家 事必歸正”을 교훈삼아, 심오한 학문연구, 건전한 정신배양, 국민적 지도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 국민대학 50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선구자들의 제자인 이청수 열사를 비롯한 우리 학생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교수가 학생을 강간하는 것이 가족적 사랑이고, 강간사건에 대하여 은폐/왜곡시키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교수가 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은폐/왜곡하는 학교당국이야말로 설립이념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당사자이다! 학교당국은 송씨의 자진 사퇴서를 반려하고 송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간통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징계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진정 학교의 명예를 세우고 무너진 사제지간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길일 것이다!

이제 학교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왜곡 음모를 철회하고, 학우들 앞에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교당국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송씨의 사법처리,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유린당한 피해자를 위해,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위해 우리 대책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997년 5월 8일

국민대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

타대 성폭행 사건

성폭행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그냥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만 받아들여져 되는 것일까? 마치 무슨 모의라도 한 듯이 올해 유난히 성폭행 사건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행사건이 비단 올해 97년도에만 생겨나는 그런 것일까? 왜 모두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반항을 했느냐, 좋아서 응한 것 아니냐, 왜 바보같이 그런일을 당하냐라고 피해자에게 질을 2배 3배 안겨주는 것일까? 가해자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는 것일까? 어느 고등학생이 주변 오락실에서 짬뽕을 만나 두들겨맞고 돈을 뺏겼다면 그 고등학생을 탓할 것인가? 왜 바보같이 돈을 뺏기냐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성수대교를 지나가던 16번 버스가 다리가 무너짐에 따라 한강으로 추락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사건을 보면서 왜 16번 버스가 그 시간에 거기쯤 지나갔냐고 버스기사에게 추궁할 수 있는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성폭행사건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며 날의 일도 아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만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한 번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1. 96년 성대 강간미수사건

한 남학우가 칼과 청테이프를 들고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여학우를 강간하려다 적발이 되어서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해결되었다. 가해자는 포르노테이프를 보고 잠깐 실수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1. 97년 성대 강간사건

성대에서는 학생과 학생간의 사건으로 지금 현재 고소중이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피해자는 사건당일 옆방의 자취하는 여학우의 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자기방으로 잠을 자러 갔다. 그때 가해자는 옆방으로 가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 하고 방을 나가려다가 같이 방을 쓰는 피해자의 친구와 만나게 되었다. 그후 가해자는 합의로 오인한 성관계였다고 강간을 인정하였으나 처벌을 거부해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가해자와 계속적으로 만나서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 차선택까지 얘기를 했으나 거부를 했고 학교측에 진상조사와 성폭력방지 학칙제정을 요구했으나 개입을 거부해서 고소를 하였다.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피해자 모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계속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재 중운위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폭력 추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현재 서울대 약대사건

약대 교수가 94년도 한 대학원생을 강간하려했다. 함께 지방으로 약초를 구하러 내려갔다. 차 안에서 계속 교수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며 지방에 도착을 해서도 동생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호텔로 가기를 원했으며 호텔에서 방을 하나만 잡았다. 이에 피해자는 방을 두 개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며 교수를 피했지만 교수는 강제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는 자기 외에 전임자도 교수

로부터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말을 듣고 서울대 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서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교수에 의한 답변서를 받아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1. 96년도 서울예전 성추행사건

작년 여름 강사가 학생 몇몇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은 강사가 사퇴를 함으로 일단락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없는 서울예전에는 총학생회에 여학생부를 신설해서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1. 부산교대 사건

체육과 교수가 체육과 산행을 하던중 여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신체적촉을 했으며 한명을 제외한 다른 여학우들은 교수가 볼에 키스를 하긴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서 진상조사위원회와 대책위를 꾸렸지만 주동한 학생들이 징계를 당함으로 묻혀버렸다.

이외에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조차 일상적으로 성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 성폭행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 ◎

성폭행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려면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다.

우선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성의 얼굴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얼굴에 피해자를 겹쳐놓아 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그제서야 이 사건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성폭행 사건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런 일은

이땅의 여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중의 잣대는 버려라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98 2/27	A8-2	91

사회적인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은, 우리 후손들의 어머니가 될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그것이 거의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날 있었던 끔찍한 상황이 떠올라 치를 떨었습니다. 4년간 자신을 가르쳐 온 교수가, 자신을 믿고 방안에 들어온 어린 여학생을 남성의 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합니다. 여학생은 이러지 마시라고 우는데 교수는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제육심을 채웁니다. 이 광경은 인간의 기본적 인륜따위는 사라져버린 정글의 약육강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절망하게 된 것은 그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풀어보려고 할 때 일어났습니다. 마땅히 진상규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학교측은 이것이 '형사고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문제의 일체를 덮어두려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절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의 마지막 호소처라고 믿었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오게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했던 무관심, 몰이해, 피해자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피해자를 더욱 크게 상처 주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가 가히 '고문이 남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도하고, 문란해진 성실태를 개탄하는 목소리들을 냅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에게 처해지는 벌을 보도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책을 주장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해서 가해자들은 '무한히 많은 자신들의 동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거나, 죄를 짓고 자신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체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가 행하는 끔찍한 성폭행의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고 성폭행을 방관하거나, 실제로 돕고 있을지 모른다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일만이 학교의 명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하면 고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지지하시고 도와 주십시오. 개인의 진실과 인권이 사라지는 사회보다 더 암담한 사회는 없습니다.

1997. 5. 6

국민대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

▲ 지지하는 글을 저희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 036 - 21 - 0653 - 471 남점리